

수행 체험

엔교지 절에서는 천태종(天臺宗) 승려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참배자에게 오후 좌선과 사경부터 절의 생활을 체험하는 등 각종 체험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에서는 나이와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참가자를 받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좌선 체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조교도(常行堂)에서 60 분간 진행됩니다. 천태종에서는 다른 수행과 조합하여 좌선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적어도 체험 3 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당일에는 화려하지 않은 편안한 복장으로 와야 합니다.

일본에서 경전을 베끼는 사경은 불교가 전래된 6 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경전은 성스러운 부처의 가르침이며, 기계 인쇄가 발명되기 전까지 경전을 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손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경전의 일부를 베끼는 것은 행복한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키도(食堂)에서는 연꽃잎 모양의 종이에 관음경의 한 문자를 사경할 수 있습니다.

엔교지 절이 준비하고 있는 체험은 일 년에 몇 차례 주말에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틀간 좌선, 사경 연습, 불경 창화(한쪽에서 경을 읽고 다른 쪽에서 그에 이어서 읽음), 경내 산책, 불교 강의에 참가합니다.